

## 대한전선(주)

### 순이익 올 1000억원 전망

대한전선(대표: 유채준)은 지난해 350억원의 경상이익을 올린데 이어 올해에는 1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낼 전망이다. 대한전선측은 지난 1월 13일 지난 해 9월 적자사업이었던 알루미늄사업부문을 분할 독립시켜 2000억원의 부채를 줄이면서 350억원의 경상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는 매출이 1조 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정보통신제품들의 판매증대와 데이콤 한국통신프리텔 등 보유주식의 가격상승으로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데이콤 주식 37만 8867주를 주당 4만 7338원에 인수한 것을 비롯해 △한통프리텔 4만 6350주(매입단가 7723원) △드림라인 10만 8000주(단가 5916원) △하나로통신 100만주(단가 1만 6864원) △신세기통신 43만 8245주(단가 5455원) △두루넷 36만주(단가 3383원) △한아통신 4500주(3333원) 등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정보통신 및 인터넷관련 기업주식을 대량 보유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0억원이 넘는 평

가차익을 올렸다”며 “주가가 떨어진 수준에서 일부 주식을 팔더라도 상당한 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선은 지난 12월 17일 KAIST 서울분원에서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련업체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과장 저손실 광섬유에 대한 KT(국산신기술인정제도)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이번에 KT마크를 획득한 전과장 저손실 광섬유는 기존 싱글모드 광섬유가 1350~1450nm 파장대에서 손실이 커 사용을 못하는데 비해 이 제품은 광섬유 중심에 존재하는 OH-이온을 완전히 제거 모든 파장대역에서 통용이 가능하다는게 특징이다.

이 제품은 특히 도시지역이나 지역계의 DWDM에서는 120 이상의 채널 증가가 가능하고 제5원도에서 일반 싱글모드 광섬유보다 분산 보상없이 2배의 거리에서 10Gbps급 초고속 대용량의 정보전송과 함께 여러 응용분야에서 보다 간편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용파장대역의 확대로 값싼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도 쉬워 광전송장비의 장치설계가 용이하고 분산 및 광섬유구조 등은 기존 광섬유와 설계가 동일해 현재 장비에 단독 또는 혼용해서 쓸 수 있다.

## (주)케이디파워

### 전기안전관리 'iKEN' 시연회

전력벤처기업인 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는 지난 1월 24일 서울 역삼동에 소재한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신규사업인 'iKEN 시연회'를 개최했다.

신규사업인 'iKEN'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업무상 해의 또는 국내출장시에도 수시로 전력설비에 대한 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점검·비상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각종 전력관련데이터를 휴대폰을 통해 자동 송신해 줌으로써 사전에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첨단 전력안전관리시스템이다.

이 기술을 이용해 환경감시를 비롯 각종 FA·HA 및 각 가정의 전기관리까지도 가능하며 종합방재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기안전진단으로 △실시간 감시제어로 안전운전 가능 △전기요금 20% 절감 △전력사고 사전예방 △국가전력수급안정에 기여하는 등 종합시스템화 실현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iKEN'시스템을 3월부터 시험서비스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상용화해, 기존의 각 가정 방문형태의

전기안전 대행업체의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주사장은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산업용 전력부하관리제어시스템 구축기술을 바탕으로 전력분야의 전자상 거래와 에너지절감시스템, 산업 자동화통합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서 세계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장기 프로젝트를 밝혔다.

### 대원전선(주)

화의 종결, 재무 100% 변제  
경영정상화 선언

**전** 력·통신케이블 등 전선류 종합메이커인 대원전선(대표 서명환)이 최근 화의 종결을 받고 경영정상화를 선언했다.

국내 상장기업 화의업체 중 최단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되찾게 된 대원전선은 지난 '99년 12월 23일 화의채무를 100% 변제, 같은 달 24일부터 증권거래소 결정에 의해 관리종목에서 2부 종목으로 편재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화의 종결은 지난 '98년 엔케이전선이 부도를 낸 후 '99년 2월 갑도물산 대표인 서명환사장이 기업을 인수, 옛 대원전선으로 상호변경과 함께 구조조정에 본격 나서게 된 것이 주효했다.

대원전선은 또 최근에는 광케이블

공장을 증축, 현재 50% 정도 공정을 마친 상태며 LAN(근거리통신)케이블 열수축튜브 등 특화제품 개발을 통해서도 수익증대 및 매출 극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력케이블 1주일, 통신케이블 납기 10일내 생산완료 시스템 구축 △다품종소량 현장납품지원 △고객불만 사항 능동적 해소 등 3대 원칙을 정해 놓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한편 대원전선은 2000년 경영방침으로 '신사업 고부가가치 사업체 승부를 건다'로 내걸고 서명환사장부터 전직원이 30분 일찍 출근, 30분 늦게 퇴근하는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올해 세운 매출 목표는 770억원이다.

### 삼화콘덴서공업(주)

동남아시아 등에 판매·생산  
거점 구축, 수출비중 높인다

**국** 내 최대 콘덴서 제작업체인 삼화콘덴서는 올해 매출계획을 작년실적 800억원보다 약 66% 신장한 1330억원으로 수립하고 국내외 시장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경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삼화콘덴서는 “내실위주 경영을 펼쳤던 지난 해와 달리 매출 확대를 위

해 고부가가치의 첨단 콘덴서 생산을 대폭 늘림과 동시에 또한 해외 수출을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펼칠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김홍극상무는 특히 해외수출을 위해 동남아시아에 판매거점과 생산거점을 각각 2군데씩 구축해 올해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4년전부터 운영한 미국의 판매거점을 올해부터는 더욱 활성화해 수출비중을 크게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해까지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던 특수용도 콘덴서 및 회로용 MLCC 적층용 콘덴서 등 첨단콘덴서에 대해서도 내수시장 확대, 전체 매출을 크게 높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진상용 전력콘덴서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환경친화적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특히 건식 몰드형 콘덴서 등 유입식 절연방식을 탈피할 예정이다.

### 한국정보네트웍(주)

한국 IBM과 전략적 제휴

**한** 전정보네트웍(대표: 서사현)이 세계적인 정보시스템 전문업체인 한국IBM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전정보네트웍(KDN)은 지난 1

월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 IBM(주)(대표 신재철)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조인식을 갖고 향후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전하고 전력산업을 비롯한 유틸리티 분야의 정보통신 사업을 공동으로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가 전략적 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전정보는 한국 IBM으로부터 최신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을 전수받게 되며 한국IBM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추진으로 확대된 유틸리티분야의 정보산업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전정보로부터 보장받는다.

두 회사의 제휴는 보편화된 기업간 제휴방식인 특정 프로젝트나 솔루션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틸리티 산업 전 분야에 걸친 기술 및 영업부문의 포괄적 제휴라는 점에서 향후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전정보측은 “그동안 한전정보는 국내 전력산업의 정보인프라 시장을 주도해 왔다”며 “한전정보의 시장 장악력과 IBM의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정보통신 업계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한전이 발전, 송전, 배전분야로 분리·독립될 경우 신설 전력회사와 전

력거래소 등에서 전력거래정산시스템을 비롯한 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전력산업의 정보인프라 시장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희성전선(주)

#### 필리핀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수주

**통** 신용 케이블 전문생산업체인 희성전선(대표: 裴恩出)이 필리핀에서 1억 6천만달러 규모의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필리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루손섬 북부 농어촌 지역 3,300개 마을에 2001년 12월까지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희성전선은 업무 전반을 일괄 수행하면서 고부가가치 광통신 케이블 등을 대량 납품할 예정인데, 설계를 포함해 기술과 관련장비 공급은 LG정보통신, 시공은 LG건설이 각각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산간지방으로 케이블 설치기 쉽지 않아 국내에서 개발된 무선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WLL-CDMA)으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업은 미국과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필리핀 정부에 지급보증을 서 공사대금 회수엔 문제가 없는 사업

으로서 사업비 1900억원은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희성전선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향후 진행될 필리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사업에 적극 진출해 해외의 전력 및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매출 증대를 꾀하기로 했다.

국제전선의 후신인 희성전선은 창립 52년을 맞은 지난 해 전력·동·광케이블 등을 주력 제품으로 2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 삼화기연(주)

#### 디지털 전압계전기 개발

**모** 터 등 전동기의 동력계통 보호에 사용되는 디지털 전압계전기가 첫선을 보였다.

계전기 전문 생산업체인 三和技研(대표: 金仁錫)은 최근 과전압 혹은 부족전압으로부터 모터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작동상태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해 주는 전압계전기(모델명 EVRFD)를 개발했다.

전압계전기는 전압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혹은 급속히 낮아질 경우 가동 중인 모터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전압을 차단해주는 장비이다. 과전압으로 모터가 타면 공장 라인 전체가 서 버리는 등 피해가 막대해 모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전압계전기는 기존 전압계 전기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단순히 전압 차단 역할만 하던데 비해 디스플레이(표시) 기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삼화기연이 2년간 1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이 제품은 계전기와는 별도로 장착된 디스플레이 장치에 동작 상황 및 고장 원인이 표시되므로 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초소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착이 간편하고 전압이 다시 정상화됐을 때 복귀방식도 수동, 자동 모두 가능하다.

김인석 사장은 “최근 해외전시회에 이 제품을 출품한 결과 호응이 높아 내년엔 10억원 정도 판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LG산전(주)

### 디지털 모터보호계전기 CE 마크 획득

LG산전(대표 : 孫基洛 부회장)은 지난 해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디지털 모터보호계전기(Digital EMPR: Electronic Motor Protection Relay)가 최근 독일 인증

기관인 튜브(TUV)社가 실시한 표준 규격인 IEC-60947 규격 시험을 통과하여 유럽 공동체 인증 마크인 CE(Conformite European) 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CE 마크를 획득한 디지털 모터보호계전기는 과전류, 결상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기능뿐만 아니라 부족 전류, 지락, 순시 단락에 대한 보호까지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종합 디지털 모터보호계전기이다.

또한, 모터보호계전기의 모든 기능을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선택 및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지털/전자식 계기에 대해 소비자들이 사용을 꺼려하는 가장 큰 원인인 노이즈(Noise)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LG산전의 디지털 모터보호계전기는 지난 해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여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제품임을 입증받았다.

LG산전은 이번 디지털 모터보호계전기의 CE 마크 획득으로 국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G산전은 최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산학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LG산전은 산·학 연계 교육 프로

그램을 개설, 지난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청주소재 자사 연수원에서 공업계 교사 78명을 초청하여 공장자동화와 PLC(논리연산제어장치) 제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산업체의 자동화 신기술을 학계에 전파함으로써 학교 교육 현장의 질을 높이고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문막 실업고등학교 오세은(吳世銀) 교사는 “교육내용이 산업제품의 신기술을 전파하는 것이어서, 자칫 기술발전의 흐름을 뒤따라가기 힘든 교육계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산업체와 교육계간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이러한 현장 연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달라”고 LG산전 관계자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LG산전은 향후에도 다양한 산학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학 연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G산전은 지난 '95년부터 매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총 600여명의 교사에게 산업체의 신기술을 전파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자사 연수원이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공업계 교사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은 바 있다.